

## 2. 채점기준

첫째, 제시문 [가]로부터, 사회윤리와 개인윤리의 입장을 적절하게 추출해 내었는가?

둘째, 제시문들을 적절히 분류하였는가?

셋째, 개인윤리 입장의 한계 내지 문제점을 적절히 지적하였는가?

## 3. 고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문제1은 고등학교(2012.12) 국어과 선택 교육과정 국어Ⅱ 독서 영역에서 문제 해결적 사고 과정으로서 독서의 특성을 이해했는지와 고등학교(2012.12) 국어과 선택 교육과정 국어Ⅱ 작문 영역에서 ‘(8) 작문 맥락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장하는 글을 쓴다.’를 묻는 논제이다.

제시문 [가]는 고등학교(2012.12) 도덕과 선택 교육과정 생활과 윤리 (4) 사회 윤리와 직업윤리에서, 제시문 [나]는 고등학교(2012.12) 도덕과 선택 교육과정 윤리와 사상 (라), 제시문 [다]는 도덕과 선택 교육과정 생활과 윤리 (2) 생명·성·가족에서 발췌한 지문이다. 제시문 [라]는 한비의 <<한비자>>에서 발췌한 지문으로 교과서 외 제시문이지만 고등학교(2012.12) 도덕과 선택 교육과정 윤리와 사상 (2) 동양과 한국 윤리 사상에서 언급된 법가사상 철학자 한비의 글이다. 제시문 [마]는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로서 고등학교(2012.12) 도덕과 선택 교육과정 생활과 윤리에서 윤리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의 한 예이다.

## Ⅲ. 제시문 분석 및 답안 사례

### 1. 제시문 분석

제시문 [가]는 현실을 바라보는 데는 개인적 윤리 관점과 사회적 윤리 관점의 두 가지 관점이 있음을, 제시문 [나]는 개인적으로는 성실하지만, 사회적 악을 저지른 아이희만의 이야기를, 제시문 [다]는 개인의 가족애의 확장이 이상정치라는 것을, 제시문 [라]는 개인적 인자함보다는 법과 규칙에 의한 다스림의 강조를, 제시문 [마]는 사회의 개선보다는 개인의 개선이 먼저라는 입장을 각각 말해주고 있다. 개인 윤리의 관점과 사회윤리의 관점에 따르면, 제시문 [나]와 [라]는 사회 윤리적 입장의 중요성을, 제시문 [다]와 [마]는 개인 윤리 입장의 중요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 2. 답안 사례

제시문 [가]로부터 개인윤리와 사회윤리의 관점을 도출하고 개인윤리는 개인의 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사회윤리는 제도적 개혁을 강조하는 것으로 설명해야 한다. 제시문 [나]~[마]의 입장을 토대로 제시문 [나]가 속한 사회 윤리 입장에서 그 상대방의 입장인 개인윤리의 관점을 비판해야 하는데, 그것은 개인적으로 선한 사람이라도, 얼마든지 사회적 구조의 문제 때문에 악을 저지러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사회 구조의 문제는 개인의 노력에 의해 개선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 비판의 핵심이 될 것이다.

**<문제1 답안 사례>**

제시문 [가]에서는 개인적 윤리의 관점과 사회적 윤리의 관점의 두 관점이 제시된다. 개인적 윤리의 관점은 개인적 선의 추구가 사회적 선을 이룰 수 있는 첩경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사회적 윤리의 관점에서는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사회의 구조적 악이 있고, 따라서 사회적 선은 이런 사회 구조적 악을 직접 제거하는 데에서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제시문 [가]에서 제시되어진, 이러한 두 관점으로부터 주어진 제시문들을 바라보았을 때 제시문 [나], [라]는 사회적 윤리의 관점, 제시문 [다], [마]는 개인적 윤리의 관점을 제시한다고 분류해서 볼 수 있다. 제시문 [나]는 개인적으로는 착했던 아이히만이라는 사람도 집단의 일원으로서는 얼마든지 악을 행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개인적 선의 한계를 말한다. 이와 유사한 입장의 제시문 [라]에서도 동정심과 같은 것들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지 않고, 오히려 법이나 원칙과 같은 사회적 요소들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사회적 윤리의 관점과는 달리, 제시문 [다]는 부모와 자식 간의 혈연애가 가정만이 아니고, 국가 경영에서도 필수적 요소라고 주장한다. 제시문 [마]는 사회에서의 남들과의 조화로운 관계는 자신의 성품을 개선하는 것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우리가 제시문 [나]가 속한 사회적 윤리의 입장을 통해 제시문 [다]와 [마]의 개인적 윤리의 입장을 바라본다면, 개인적 윤리의 관점은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해소할 수 없는 사회의 구조적 악의 존재를 간과하고, 모든 것을 개인적 선의 차원에서 해소하려 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비판해 볼 수 있다.

[사] (\* 다음은 보트랭이 법학을 공부하러 파리에 온 가난한 시골 청년 라스티냐크에게 그의 장래에 대해 설교하는 장면이다.)

고결한 자네는 개라도 미쳐버릴 권태와 궁핍을 겪은 다음 어떤 괴상한 녀석의 대리역, 즉 검사보가 되겠지. 동네 한 모퉁이에 근무하며, 마치 푸줏간 개에게 수프를 던져주는 것처럼, 정부는 자네에게 천 프랑을 던져줄 걸세. 도둑을 쫓아가며 짚어대겠지. 부자를 위해서 변호하고 착한 사람들을 단두대에 보낼 거야. …중략… 서른 살쯤 되고서도 아직 법복을 안 벗는다면 자네는 연봉 천이백 프랑의 법관이 될 걸세. 마흔 살쯤 되면 자네는 육천 프랑의 지참금을 가진 어떤 방앗간집 딸과 결혼하겠지. 제기랄. 후견인을 찾아보게. 그렇게 되면 자네는 나이 서른에 연봉 삼천 프랑의 초심재판소 검사가 될 걸세. 그리고 시장 딸과 결혼할 테지. 만일 자네가 정치적으로 비열한 짓을 좀 하기만 하면 마흔 살쯤에 검사장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겠지. …중략… 나는 기꺼이 프랑스에는 검사장 자리가 스무 군데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겠네. 자네는 이만 명의 후보자 가운데 한 사람일 뿐이지. 이들 가운데에서 한 계급을 승진하기 위해서 가족을 팔아버릴 만한 사기꾼들도 있다는 사실을 자네에게 영광스럽게 알려주는 바일세. 이 직업이 싫다면 다른 것을 찾아보세. 라스티냐크 남작님 나리는 변호사가 되기를 원하실까? 오! 멋있겠지. 십 년 동안 괴로움을 겪으며 한 달에 천 프랑을 쓰고 도서실과 사무실을 차려야 하겠지. 사교계에 드나들며 사건을 맡기 위해서 소송 대리인의 옷자락에 입을 맞추어야만 하지. 게다가 허로 법정을 청소해야 하는 것일세. 자네가 이 직업에서 성공한다면 나는 다른 말을 하지 않겠네. 그러나 쉰 살이 되어 파리에서 연수(年收) 오만 프랑 이상 버는 변호사 다섯 명만 찾아보게. 어렵없는 소리지! 이런 일 때문에 영혼을 망치기보다는 차라리 나는 해적이 되겠네. 어디에서 돈을 수중에 넣는단 말인가? 어쨌든 유쾌한 일이 못 되네. 여자의 지참금으로 한밀천 잡을 수는 있겠지. 그런 결혼을 하겠는가? …중략… 만일 내가 자네에게 백만 프랑의 지참금을 가진 아가씨를 소개해 주면 어떤가?

- 오노레 드 발자크, □교리오 영감□

## II. 출제의도 및 채점기준

### 1. 출제의도

사회 현상 중 하나인 부의 불평등 현상과 사회 이동을 통계자료를 통해 명확히 이해하고, 자료가 제공하는 정보를 ① 프랑스 대혁명이라는 역사적 사건, ②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의 사회이동이라는 관점, ③ 문학 소설에 나타난 사회, 현실적인 문제와 연관시켜 추론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 2. 채점기준

첫째, 제시문 [가], [나], [다]를 이용하여 [마]의 통계 자료의 시사점을 설명할 수 있는가?

둘째, 제시문 [라]의 내용에 근거하여 자본주의 발전과 소득 불평등의 관계에 대해 서술하고, 제시문 [다]를 평가하고 있는가?

셋째, 제시문 [사]의 소설 속 주인공의 고민을 [바]의 통계자료에 나타난 그 시대의 현실과 연결시켜서 해석할 수 있는가?

넷째, 기타 자료의 한계점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가?

### 3. 고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문제2는 고등학교(2012.12) 사회과, 선택 교육과정, 일반 과목, 사회·문화 (1) 사회 문화 현상의 탐구 능력을 심도 있게 묻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고등학교(2012.12) 국어과 선택 교육과정 국어Ⅱ 작문 영역에서 ‘(8) 작문 맥락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장하는 글을 쓴다.’를 심도있게 묻는 논제이다.

제시문 [가]는 고등학교(2012.12) 사회과 선택 교육과정 일반 과목 <사회·문화> (4) 사회 계층과 불평등에서 발췌했다. 제시문 [나]는 제시문 [가]의 구체적 예시로서 고등학교(2012.12) 사회과 일반 과목 <세계사> (5) 서양 국민국가의 형성과 산업화에서 발췌했다.

제시문 [다]는 고등학교(2012.12) 도덕과 <윤리와 사상> (4) 사회 사상 (아) 사회주의 사상의 윤리적 함의와 관련이 있고, 제시문 [라]와 [사]는 (4) 사회 사상 (사)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윤리와 관련이 있다. 제시문 [마]와 [바]는 (4) 사회 계층과 불평등 관련 제시문이다. [마]와 [바]의 도표는 고등학교(2012.12) 사회과, 선택 교육과정, 일반 과목, 사회·문화 (1) 사회 문화 현상의 탐구를 이해하고 비교 분석하는 태도와 연관되어 있다.

## Ⅲ. 제시문 분석 및 답안 사례

### 1. 제시문 분석

제시문 [가]는 사회 불평등 현상을 설명하는 내용이고, 제시문 [나]는 프랑스 대혁명과 그 이후에 일어난 정치, 경제적 개혁을 설명하는 내용이다. 제시문 [다]는 소득 불평등이 자본주의가 발달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감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제시문 [라]는 승진 등을 통한 수직이동이 어려울 수 있음을 보여주는 한 공장 노동자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제시문 [마]는 소득 불평등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 통계자료이다. 제시문 [바]는 상속 재산의 중요성의 추이를 보여주는 통계자료이다. 제시문 [사]는 19세기 초 노동 소득으로 부를 쌓기 어렵다는 소설의 일부이다.

### 2. 답안 사례

제시문 [마]에서 전체 부에서 상위 1%와 상위 10%가 차지하는 부의 몫으로 부의 최상위층이라 할 수 있는 1분위 10분위가 프랑스에서 차지하는 부의 비중으로 제시문 [가]의 사회 불평등 현상 중 경제적 불평등을 계량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제시문 [마]의 그래프에서 이 두 지표는 나폴레옹 법전이 도입된 무렵인 1810년에 각각 80%, 45% 수준의 매우 높은 불평등도를 보이고 있으며 그 후 10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거의 변화가 없거나 약간 상승하였다. 이는 여전히 높은 불평등도로 나폴레옹의 민법 등 대혁명 이후 시작된 개혁을 포함하여 제시문 [나]에 소개된 여러 정치·경제적인 제도 개혁이 부의 불평등으로 측정된 사회 불평등 현상에 큰 영향이 없었을 수도 있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편, 제시문 [다]의 쿠즈네츠 이론은 자본주의의 발전이 자연스럽게 소득불평등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제시문 [라]의 자료는 1910년 이후 60년 동안 꾸준히 부의 불평등이

감소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런 부의 불평등의 감소가 쿠즈네츠의 이론이 예측한 대로 노동자들의 소득 증가에 기인한 것인지는 제시문 [마]의 자료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공장에서의 승진이 어려움을 보여주는 제시문 [라]의 유르기스의 사례는, 노동자의 이동을 통해 성자의 혜택이 모두에게 돌아간다는 [다]의 불평등 개선 메커니즘이 쉽게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제시문 [사]는 검사나 성공한 변호사로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고, 또 그를 통한 부의 축적 과정의 험난한지에 대해 서술한다. 또한, 제시문 [바]에서 최상위 상속인의 생활수준이 하위층 노동자의 생활수준의 25배 이상에 이를 정도로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결혼 지참금을 통해 이와 같이 엄청난 부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앞에 놓이게 될 경우, 노동소득자로 성공하고 부를 축적하기가 얼마나 험난한가를 알게 된 [사]의 가난한 법학생 라스티냐크가 19세기 초와 20세기 초의 상황을 비교하여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 논리적으로 서술해야 한다.

### <문제2 답안 사례>

[마]는 [가]의 사회 불평등 현상을 부의 불평등으로 계량화하여 그 추이를 보여준다. [나]에 설명된 나폴레옹 법전이 도입된 무렵부터 백 년간, 전체 부에서 상위 1%와 상위 10%가 차지하는 몫은, 각각 80%, 45%에서 큰 변화가 없거나 상승한다. 비록 혁명 직후의 변화 양상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으나, [마]는 나폴레옹의 민법 등 대혁명 이후 시작된 개혁이 부의 불평등을 개선하는 성과가 크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한편, [다]의 쿠즈네츠는 자본주의의 발전이 자연스럽게 소득불평등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비록 자본주의의 발전 정도를 시기별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마]의 자료는 1910년 이후 60년 동안 부의 불평등이 계속 감소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런 부의 불평등의 감소가 노동자들의 소득 증가에 기인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며, 공장 내에서의 승진과 계층 상승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라]의 유르기스의 사례는 노동자의 이동을 통해 성장의 혜택이 고르게 돌아간다는 [다]의 불평등 개선 메커니즘이 쉽지 않음을 시사한다.

[바]는 최상위 상속인의 생활수준이 19세기 초에는 하위층 노동자의 생활수준의 25배 이상에 이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혼 지참금을 통해 (최상위의 노동소득자에 비해서도) 엄청난 부를 얻게 되는 기회는, 검사나 변호사로 성공해 부를 축적하기가 얼마나 험난한가를 알게 된 [사]의 가난한 법학생을 고민에 빠트릴 수도 있을 것이다. 반면 20세기 초의 최상위 상속인의 생활수준은 최상위 노동소득자의 생활수준의 절반으로 크게 떨어져 결혼을 통한 상속의 유혹이 19세기 초에 비해 크지 않다. 20세기 초의 라스티냐크라면 상속을 노리고 결혼하라는 보트랭의 말을 무시하고 상위 1퍼센트의 직업을 목표로 사는 것이 더 도덕적이고 현명해 보인다.